

일부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 및 관련요인

한세영*

*해전대학 치위생과

e-mail:syhan111@hanmail.net

Depress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Dental Hygienists

Se-Young Han*

*Dep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요 약

본 논문은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D도시 소재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2. 우울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균일수록, 월평균급여가 적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균일수록,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균일수록,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균일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균일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균일수록, 음주를 하는 균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균일수록,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러 요인들을 개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향상을 통한 우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서론

직업생활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근원이 되는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사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1].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느끼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불면이나 체중의 감소 및 증가, 두통, 오심, 피로, 구토 등의 증상과 정신적으로 우울증, 주의집중저하, 수면장애등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2].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과 인간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현대인은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3]. 특히 인간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전문직인 의료 종사자들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심각하다[4].

최근 대기업의 병원사업 진출, 민간보험 확대 및 세계무역기구의 의료시장 개방 압력 등으로 의료계

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5] 치과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치과 의료계에서 치과위생사는 구강진료영역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치과 의료서비스 질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6]. 치과위생사 업무의 양적, 질적 기대와 임상 업무와의 부조화는 치과위생사로서 스트레스 가중시키며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점차 축적되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탈진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7].

치과위생사는 직무스트레스로 의욕상실과 우울을 경험하여 개인의 건강 문제 뿐 아니라 낮은 생산성과 업무능률의 저하로 인해 이직 등과 같은 극단적 행동을 나타낼 수 있어 조직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8].

또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은 직무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에 따라서 상이하게 표출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9]. 그러나 지금까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우울과 이와 관련요인들을 포함한 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 특성 및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D도시 소재 일부 치과의원에 재직중인 치과위생사 250명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29부를 제외한 221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방법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으로 설문 내용을 작성하여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요인에 대한 내용은 Karasek 등[10]의 직무내용설문지(JCQ)를 근무환경에 맞게 번안한 타당도가 검증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11]. JCQ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군」과 「낮은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수준의 측정은 Zung[12]의 자기평가식 우울척도를 이용하였다. SDS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로 총 득점 합계(20~80점)를 우울의 지표로 하였

다. 평가는 50점 미만을 정상, 50-59점을 경도 우울증, 60-69점을 중등도 우울증, 70점 이상을 중증 우울증으로 하였다.

2.3 분석방법

연구 자료는 SPSS 13.0을 이용하였다. 우울수준의 관계는 Chi-square test로, 각 독립변수에 따른 우울수준의 총 점수에 대한 항목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우울수준과 제 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3. 연구성적

3.1 연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월평균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군에서 중등도의 우울수

준을,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군에서 경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인 군에서 경도, 중등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업무에 대한 적성은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경도, 중등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는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경도, 중증의 우울수준을 보였고 유의하게 높았다(표 1).

[표 1]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구 분	우울수준				p-값*
	정상	경도	중등도	중증	
월평균급여(만원)					0.019
≤150	56(76.7)	10(13.7)	7(9.6)	0(0.0)	
151≤	119(80.4)	24(16.2)	2(1.4)	3(2.0)	
평균 근무시간(시간/일)					0.018
≤9	156(81.3)	27(14.1)	8(4.2)	1(0.5)	
10≤	19(65.5)	7(24.1)	1(3.4)	2(6.9)	
업무에 대한 만족도					0.000
만족	127(88.2)	13(9.0)	3(2.1)	1(0.7)	
불만족	48(62.3)	21(27.3)	6(7.8)	2(2.6)	
업무에 대한 적성					0.000
맞는다	144(84.7)	21(12.4)	5(2.9)	0(0.0)	
맞지 않는다	31(60.8)	13(25.5)	4(7.8)	3(5.9)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전환의사					0.271
전환할 의사가 있다	65(73.0)	18(20.2)	4(4.5)	2(2.2)	
전환할 의사가 없다	110(83.3)	16(12.1)	5(3.8)	1(0.8)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0.018
좋다	161(81.3)	26(13.1)	9(4.5)	2(1.0)	
나쁘다	14(60.9)	8(34.8)	0(0.0)	1(4.3)	
계	175(79.1)	34(15.4)	9(4.1)	3(1.4)	

3.2 우울수준

3.2.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

전문대졸 이하 균일수준 유의하게 높았다(표 2).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

구 분	명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p-값*
연령(년)			0.416
≤25	153	43.41±7.80	
26≤	68	42.51±6.97	
교육수준			0.043
전문대졸 이하	202	43.45±7.55	
대졸 이상	19	39.78±6.86	
계	221	43.13±7.55	

3.2.2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평균급여가 적을수록, 「불만족」인 균일수준, 「맞지 않는다」는 균일수준,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균일수준 유의하게 높았다(표 3).

[표 3]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구 분	명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p-값*
월평균급여(만원)			0.046
≤150	73	44.57±7.14	
151≤	148	42.42±7.67	
업무에 대한 만족도			0.000
만족	144	41.20±7.08	
불만족	77	46.75±7.08	
업무에 대한 적성			0.000
맞는다	170	41.54±7.15	
맞지 않는다	51	48.45±6.35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전환의사			0.078
전환할 의사가 있다	89	44.22±7.58	
전환할 의사가 없다	132	42.40±7.47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0.002
좋다	198	42.59±7.55	
나쁘다	23	47.82±5.85	
계	221	43.13±7.55	

3.2.3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

「건강하지 못하다」는 균일수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균일수준, 음주를 하는 균일수준, 주당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 하지 않는 비규칙적인 균일수준 유의하게 높았다(표4).

[표 4]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

구 분	명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p-값*
주관적인 건강상태			0.000
건강하다	173	41.77±7.23	
건강하지 못하다	48	48.04±6.64	
아침식사			0.009

매일/가끔	156	42.28±7.58	
안 먹는다	65	45.16±7.12	
간식여부			0.129
매일/가끔	205	43.35±7.52	
안 먹는다	16	40.37±7.57	
음주빈도			0.023
매일	34	44.41±8.66	
가끔	129	43.83±6.32	
안한다	58	40.82±8.91	
규칙적 운동			0.003
규칙적	76	41.07±7.72	
비규칙적	145	44.21±7.25	
수면시간(/일)			0.094
7-8	157	42.59±7.72	
<7 or 8<	64	44.46±7.00	
계	221	43.13±7.55	

3.2.4 직무스트레스요인별 우울수준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 유의하게 높았다(표 5).

표 5. 직무스트레스요인별 우울수준

구 분	명	우울수준	
		평균±표준편차	p-값*
업무요구도			0.007
낮다 [†]	136	42.05±7.51	
높다 [‡]	85	44.85±7.33	
업무자율성			0.015
낮다 [†]	123	44.54±8.10	
높다 [‡]	98	42.01±6.91	
상사의 지지도			0.003
낮다 [†]	112	44.59±7.37	
높다 [‡]	109	41.63±7.47	
동료의 지지도			0.080
낮다 [†]	172	43.61±7.33	
높다 [‡]	49	41.46±8.12	
계	221	43.13±7.55	

[†], [‡]: 각 총점을 중앙값을 기준으로 낮다와 높다로 나눔

3.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6).

표 6. 우울수준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구 분	우울수준	
	상관계수	p-값*
업무에 대한 만족도	-0.351	0.000
업무에 대한 적성	-0.386	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0.212	0.002
주관적인 건강상태	-0.343	0.000
업무요구도	0.163	0.015
상사의 지지도	-0.284	0.000
동료의 지지도	-0.243	0.000

4. 고찰

자신의 생활환경 과도한 스트레스는 곧 우울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13]. Blehar, M.C. & Oren, D.A[14]연구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라는 직업군은 우울증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그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임상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수준은 이 등[15]의 연구에서 정상군 78.5%, 경도 우울군 11.2%, 중등도 우울군 5.7%, 중증 우울군 4.6%로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전문대졸 이하군, 월평균 급여가 적은 군, 업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군,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교육수준과는 이 등[15]의 연구, 이와 김[16]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고학력일수록 의료지식에 대한 질이 높아 업무의 부담감과 직무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우울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월평균 급여와는 이 등[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는 정[17]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높은 우울수준을 보이는 것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는 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군, 음주를 하는 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주관적인 건강상태와는 한[1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적절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여 우울수준을 감소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요구도가 높은 군, 업무자율성이 낮은 군,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은 군에서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는 윤[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로 전체 치과위생사에게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통한 우울증 예방, 정신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인자들의 개선과 시행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D도시 소재 임상 치과위생사 221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 79.1%, 경도 우울군 15.4%, 중등도 우울군 4.1%, 중증 우울군 1.4%로 나타났다.

2. 우울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군일수록, 월평균급여가 적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인 군일수록,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일수록,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일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일수록,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군일수록, 음주를 하는 군일수록,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군일수록, 업무요구도가 높을 때, 업무자율성이 낮을 때, 직장 내 상사의 지지도가 낮을 때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업무에 대한 적성,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 주관적인 건강상태, 상사의 지지도, 동료의 지지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업무의 요구도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여러 요인들을 개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어 향상을 통한 우울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Cooper CL. The stress check. New Jersey, Prentice Hall, Spectrum.1981.
- [2] Public Health Service. Healthy people 2000:

- nation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objectiv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 [3] 이경순. 간호원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4] 이영수. 일부 산업장근로자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자각 정도와 건강습관과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23(1):33-42,1990.
- [5] 정기택.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변화와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예방의학회지.:37(1):1-5,2004.
- [6] 권수진. 치과위생사 근로생활의 질(QWL)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 [7]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업무스트레스 및 강인성과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1(1):1-12,2000.
- [8] 김진원.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9] Aneshensel CS.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 Rev Sociol .:18(1):15-38,1992.
- [10] Karasek RA, Theorell T, Schwartz JE, Schnall PL, Pieper CF, Michela JL. Job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the prevalence of myocardial infarction in the US Health Examination Survey(HES) and th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ANES). Am J Public Health.:78(8):910-918,1988.
- [11] Chang SJ. A Study on the Distribution and Risk Factors for Psychosocial Distress, and the Development Worksite Stress Reduction Program.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 [12] Zung WWK.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12(1):63-70,1965.
- [13] Beck AT.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a cognitive model :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1974.
- [14] Blehar, M.C.&Oren, D.A.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Medscape womens Health.:2(2):3,1997.
- [15] 이미옥, 류소연, 변익건, 박정희. 일부 임상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련성. 조선의대논문집.:29(2):26-37,2004.
- [16] 이동수, 김지혜.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과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39(6):999-1009,2000.
- [17] 정수정.임상간호사의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 및 우울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한미진. 여성노인의 수면과 인지기능, 우울의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19] 윤현숙.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요인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7.